

MILAL & WORLD

8

장애인 전도 / 봉사 / 계몽

밀알&세계





표지사진

6월26일부터 28일까지 CSU Long Beach에서 열린 2025 사랑의캠프에서 장애인 참가자와 봉사자들이 신나게 율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02 | 칼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삶의 전환점

04 | 텍사스밀알 여성성경학교
함께 걸어난 믿음의 여정

06 | 사랑의교실 봄학기 종강식
The End, but Continued...

08 | 시애틀밀알 사랑의캠프 후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

10 |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정신지체 장애인의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12 | 2025 사랑의캠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다

14 | 밀알의 자랑
자폐 화가 최요셉, 예술로 치유와 소통을 열다

| 칼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삶의 전환점

"I believe in Christianity as I believe that the sun has risen, not only because I see it, but because by it I see everything else."

C. S. Lewis의 책 <Is Theology Poetry?>에 기록된 구절이다. 이 문장은 나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던 책 <Seeing with New Eyes>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용문이다.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왔다. 한국을 떠난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 뵈었다. 십 수년이 지난 세월 동안 많이 달라진 그들의 모습에 조금 놀랐다. 예전에는 각자 왕성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서 지금은 그 활기찬 모습들을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었기에 놀랐고, 나도 그만큼 세월의 흔적이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놀랐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오기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Seeing with New Eyes>는 David Powlison이라는 성경적 상담(Biblical counseling) 철학을 완성시킨 분이 저술하신 책으로, 성경적 상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밴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294호 | 2025년 8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최재휴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밴쿠버: 604-339-4417

텍사스: 267-467-5971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milals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 불어넣었던 책이다. 그 마음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내 인생의 큰 전환이 이 책을 기점으로 발생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 좀 더 거슬러가면 고등학교 2학년 6월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평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그 전환이 나를 이토록 다른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C. S. Lewis가 이야기한 것 처럼,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서 크나큰 사건임을 그 때는 몰랐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작은 순간이 엄청난 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간직하려 한다. 그래서 밀알선교단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그들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들의 인

생 중 가장 큰 전환이, 연약하고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 전해지면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고,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이 밀알선교단이 꿈꾸는 찬란한 시간일 것이다. 나는 그 찰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글 | **채경수 목사** (텍사스밀알 단장)





함께 걸어간 믿음의 여정

지난 7월 7일부터 11일 매일 10시부터 2시 15분까지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다섯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밀알성경학교는 지역의 교회들이 하루 단기선교를 밀알선교단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세미한교회, 뉴송교회, 제자침례교회, 베다니교회, 영락장로교회가 참여하여 일주일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어요.

1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어요. 왜냐하면 1:1 봉사자가 10명이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성경학교는 시작 시간, 점심시간, 끝나는 시간을 축으로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스케줄을 짜되, 자주 말씀에 노출되게 하였습니다. 함께 동역해준 교회들에 감사를 전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었던 하루의 여정이 참으로 귀하고 힘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과 기뻐할 수 있는 수고였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날은 도전이 되는 날이었어요. 방학 동안 훌쩍 키가 커버린 친구는 갑자기 변경된 스케줄에 짜증을 내며, 옆 사람을 손톱으로 눌러 살갓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끝나야 하는 시간에 끝나지 않아 불안해서 계속 문 앞에서 우는 친구 등 새로운 패턴이 시작되는 전환의 굴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성경학교를 통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지각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친구들의 웃음을 회복시키셨어요.

어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년에는 2주 동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가 참 좋아한다고... 이 얘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기쁨을 더 많은 봉사자와 교회가, 더 많은 장애인들이 맛보길 기도해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봉사자와 함께 하루라도 더 긴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해서,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글 | 텍사스밀알 홍보부

The End, but Continu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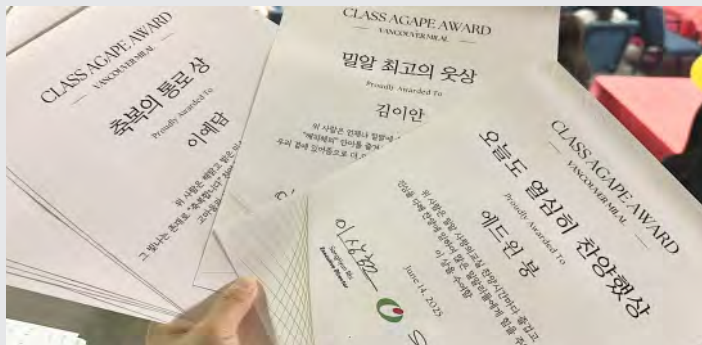
뜨거운 햇살과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가 여름의 시작을 알리던 6월 중순에 우리 밴쿠버밀알은 2024-25 학년도 종강행사를 가졌습니다. 종강이란 단어는 설렘에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매주 사랑의교실에선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장애인 친구들과 밀알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매주 토요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밀알 봉사에 참여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밀알에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밀알 장애인 선교를 하며 배우는 즐거움과 헤어 나오기 힘든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의 매력, 그리고 모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니다. 사랑의교실에서 서로에게 베푸는 친절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눈이 부시게 아름답고 밀알이라는 공동체의 소중함과 큰 가치를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니다.

밀알러들은 이른 시간에 모여 알록달록한 풍선과 각양데코레이션으로 메뉴를 꾸몄습니니다. 몇몇 다른 밀알러들은 테이블을 옮기며 친구들이 앉아 파티를 즐길 자리

들을 준비했고 또 다른 밀알러들은 친구들과 함께 드릴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니다. 밀알러들 모두 친구들이 행복해하는 얼굴을 떠올리며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도왔습니니다.

준비를 마친 후 오전 미팅을 시작했습니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밀알러들 모두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모습으로 오전 미팅에 참여했습니니다. 기도로 오전 미팅을 마치고 밀알러들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친구들을 반길 준비를 했습니니다. 친구들은 봉사자들의 기대에 보답하듯 환한 미소와 기대에 가득 찬 모습으로 종강파티에 도착했어요.

종강일 사랑의교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밀알 모두가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니다. 몇몇 사람은 크게 박수를 치거나 흥겹게 춤을 추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쁨 가득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통해 모두의 마음의 문이 열리자



이상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셨어요. 목사님이 말씀 설교하실 때 우리 밀알러들은 친구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주로 친구들 옆에서 말씀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친구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밀알러들은 항상 우리의 역할이 ‘친구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집중해서 봉사에 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귀하게 생각하며 항상 힘써 노력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시간이 끝나고 김예은 친구와 전자영 스페셜 밀알러가 준비한 특별 공연을 보았어요. 김예은 친구는 수줍은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그녀의 클라리넷 연주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전자영 밀알러가 공연해주신 바이올린 연주 또한 모두를 감동시키고 마음의 안식을 주었어요. 그녀들의 아름다운 연주 덕분에 친구들과 봉사자들은 설렘을 품고 다음 순서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다음 순서는 바로 밀알 모두를 위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많은 분야에서 수고해주신 봉사자들을 위한 상과 밀알에서 각자의 매력으로 빛을 낸 친구들을 위한 상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을 위한 상장은 정말 특별했는데 그 이유는 각 친구들의 버디 밀알러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밀알러들은 그림

자처럼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의 매력과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버디 밀알러가 만든 상장은 무엇보다 특별하고 친구들을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겨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정과 존경이 담긴 상장을 받고 난 후 점심 시간을 맞았습니다. 파티 음식을 자모회에서 준비해주실 때 정유진 친구는 멋진 댄스 퍼포먼스로 파티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었어요. 큰 테이블 여럿 위에 가득 쌓인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과 홀 안을 가득 채운 맛있는 냄새가 지나온 1년을 달려온 우리 모두를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홀은 모두의 행복하고 즐거운 웃음 소리로 넘쳐났어요.

종강행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헤어진 밀알러들의 얼굴은 지쳐 보이기도 했지만 뿌듯함과 아쉬운 표정들도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사랑의교실에서 함께한 친구들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쉬운 마음을 들게 하지만,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에 다음 학년 한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갈 기대를 품었습니다.

글 | 서예슬 (밴쿠버 밀알러)

주: ‘밀알러’는 밴쿠버밀알의 자원봉사자를 지칭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

This year's Camp AGAPE was a phenomenal experience for me. The people who came with me weren't complete strangers, but I was especially thankful that my partner for the camp was Katie and Chloe. During the camp, Katie, Chole, and I played games, ran around together, and made so many fun memories. Even though we were close, I felt like we've gotten even closer through this camp, which made me really happy. We laughed so much over little things, and I felt grateful for just being able to spend time with them.

I also got to spend more time with other friends at the camp. We shared snacks, played games, and talked more than we usually do. I really enjoyed the sense of everyone opening up and including each other. At first, I thought the camp would be about having fun together, but while I spent time there, I realized how we all helped and looked out for others. Seeing everyone laugh over small things and take care of each other left a deep impression on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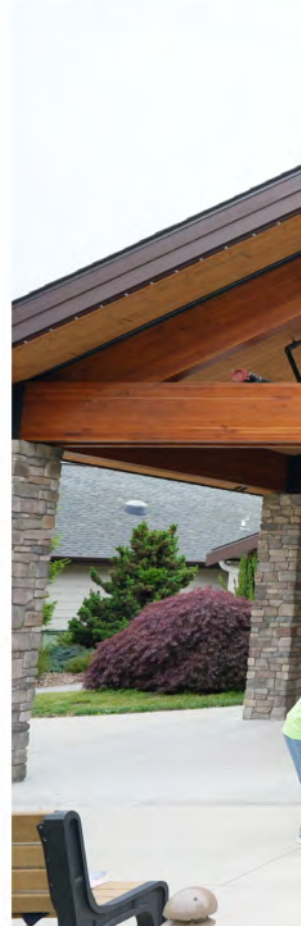
Through this camp, I was reminded again how precious it is to spend meaningful time with others and build memories together. I'm truly thankful to my partner and my group for helping me make such warm and happy memories that I'll never forget

이번 시애틀밀알 사랑의캠프는 저에게 정말 특별하고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함께 간 사람들이 완전히 낯선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특히 제 캠프 파트너가 케이티와 클로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캠프 동안 케이티, 클로이와 함께 게임도 하고, 뛰어다니고,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원래도 친한 친구들이었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뻐요.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또 캠프에서 다른 친구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간식을 나눠 먹고, 게임도 같이 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어울리려는 분위기가 참 좋았고, 저도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어요. 처음엔 '재미있게 노는 캠프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와주고, 챙기고, 함께 웃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작은 일에도 함께 웃고, 서로를 돌보는 모습들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이번 캠프를 통해 저는 누군가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함께 추억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을 함께 만들어준 제 파트너와 조원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글 | 이세영 (시애틀밀알 봉사자)





장애는 흔히 사람들로 부터 오해와 편견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렵고, 감정을 말로 전하기 힘들기에 때로는 그 존재 자체가 가려지고 무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능력, 지식으로 평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말 잘하는 사람, 판단이 빠른 사람만이 아니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표현이 느린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서툴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한 계획 속에서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조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자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특히 레위기에서는 청각장애인 앞에서 저주하지 말고,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을 보호하고 존중하시며,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애인의 존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 부끄럽거나 모자란 존재가 아

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병든 자, 가난한 자, 장애를 가진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 제자들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가 죄를 지은 것도,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이미 자신의 뜻을 담고 계셨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이들도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과 같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를 신뢰하며 믿는 사람, 즉 전적인 의존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언어로 표현하지 못해도, 머리로 복잡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의지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깊은 고백이 됩니다. 많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순전함 속에서 우리

장애인의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는 오히려 참된 믿음의 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행자’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예배, 교제, 사역은 단지 봉사의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천국의 모양을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공동체에 보내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깨뜨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말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복잡한 교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말로 기도하지 못해도,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으십니다.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하여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고, 그 안에 자신의 형상을 담으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갈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혹시라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도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장애 형제자매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 땅에서 실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름을 가진 이들을 통해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은 하나님 나라의 번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는 단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사야 43:4)

글 | 김정기목사 (북가주밀알 단장)





| 2025 사랑의캠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다

‘2025년 밀알 서부지단 연합 사랑의캠프’가 6월26일 (목)부터 28일(토)까지 2박3일 동안 CSU Long Beach 캠퍼스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사랑의캠프는 남가주와 북가주, 캐나다 밴쿠버밀알 가족들과 더불어 ANC온누리교회 GM과 청년 트랙 팀, 멕시코, 과테말라 등에서 약 370여 명의 장애인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 스태프 등이 참석해 CSU Long Beach 캠퍼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 및 교제를 나누며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라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Run for the Prize (믿음의 경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랑의캠프에 참가하는 우리 장애인들과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경

주를 끝까지 완수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다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한 주제입니다.

사랑의캠프 첫날은 CSU Long Beach에 도착해 기숙사 방 배정 후 ‘김형건’ 트랙팀 리더의 인도로 본격적인 캠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ANC온누리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인 ‘김태정’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시며 개회예배를 인도해주셨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족식과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봉사자들이 장애인



참가자의 발을 닦아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했고, 서로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장애, 비장애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동등하게 누려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은 참가자들을 성인팀과 아동팀으로 나누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 등이 이어졌으며 Seal Beach 해변으로 가 수영과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

니다. 특히 “Run for the Prize”란 캠프 주제에 걸맞게 마라톤, 사이클, 수영 등 ‘철인삼종경기(Triathlon)’를 약식으로 진행하고 트로피를 수여하는 시상식도 거행했으며, 저녁에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무대에서 경쾌한 음악에 맞춰 모든 참가자들이 신나는 댄스파티를 벌이며 이번 캠프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매년 장애인사역 세미나와 가족초청캠프를 진행했던 멕시코밀알 후아레스 장애인 가정들과 과테말라밀알 가족들도 캠프에 참여하여 밀알과 사랑의캠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28일엔 사랑의교실 브랜치별로 공연 발표 후 매년 캠프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돌봐주는 ‘남가주한인간호사회’에 감사패를 증정하였고, 지난 15년 동안 사랑의캠프를 위해 헌신한 트랙팀의 ‘조은송’, ‘정유진’ 선생에게 ‘대통령상 Life Time Award’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후 ‘정승원’ 총신대 전 교수가 인도하는 폐회예배를 끝으로 2025년 사랑의캠프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도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기도, 후원 덕분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캠프가 진행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참가자와 봉사자들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길 바랍니다.

글 | 남가주밀알 홍보부



자폐 화가 최요셉, 예술로 치유와 소통을 열다

자폐 장애를 지닌 화가 최요셉 작가의 일곱 번째 개인전이 났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 풍경, 도시의 일상, 여행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41개 작품들이 소개되었으며, 전시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뉴욕 퀸즈 칼리지포인트에 위치한 GALA ART CENTER에서 열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기관에 기부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1987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태어난 최 작가는 세 살 무렵 자폐 판정을 받았다. 말이 느리고 사회적 소통이 어려웠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종이 위에 연필로 캐릭터와 숫자를 반복해 그리며 남다른 표현력을 보였다. 부모는 이러한 아이의 집착을 억제하기보다는 예술로 유도하며 재능을 발견했고, 특히 어머니 최지정 씨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때 그 안에서 교육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회고한다.

1994년, 아버지 최건 씨가 한국 전남대 교수로 재직 중 미국으로 비지팅 스칼라 자격으로 체류하던 시기 한국을 오갈 때 기내에서 쉼 없이 그림을 그리던 요셉의 모습을 계기로 본격적인 예술 교육이 시작됐다. 이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이사를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요셉의 예술 활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부모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녀를 대신해 묵묵히 환경을 바꾸고 때로는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으며 아이의 가능성에 집중했다. 아버지 최건 씨는 가르치는 교수직이 너무 좋았지만 눈물로 내려놓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야 했다"며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다.

최요셉 작가는 세상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자신의 감각을 섬세한 붓질과 생동감 있는 색채로 캔버스에 담는다. 그의 작품은 인상파 화풍을 연상시키는 빛의 표현과 감정의 변화가 돋보이며 색깔에 대한 뛰어난 감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다. 특히 김봉중 작가와 최성호 작가 등 여러 화단의 중진들로부터 "최근 몇 년

간 본 전시 중 최고"라는 찬사를 받으며 작품 교환 제안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가 가진 색에 대한 절대 감각과 장면의 구성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평가한다.

그의 전시는 단순한 예술 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최 작가는 그 수익을 장애인 기관에 기부하며 자신이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사회의 '수혜자'로만 여기는 통념을 넘어서, '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림을 통해 평안함을 전달하고, 또 병원과 기관에서 치료적 용도로 작품을 찾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

최 작가의 어머니는 "요셉이 그림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그림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참 감사하다"며, 특히 "그의 작업이 어린 자녀를 둔 장애인 부모들에게 도전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요셉 작가는 현재 뉴저지에 거주하며, ACC Gallery,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Saratoga Library, Norton Gallery of the Pacific Art League in Palo Alto, World Mission Baptist Church, Valley Church Cupertino 등지에서 전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성경 이야기를 구성한 3부작 달력 시리즈를 출판하였다.

그의 예술은 자폐라는 한계를 넘어, 감각과 감성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여전히 곳곳하게 걸어가는 부모의 헌신과 믿음이 있다. 최요셉의 여정은 장애를 넘어 예술로 치유와 나눔을 실현하는 귀한 삶의 증거이자,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글 | <미주뉴스앤조이> 2025년 6월1일 자에서 발췌
www.newsnojoy.us/news/articleView.html?idxno=25388

| 남가주

LA 화요예배 (7월)

7월 한달은 여름방학 기간으로 예배를 쉬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화요예배는 8월 6일(화)에 시작됩니다.

OC 목요예배 (7월)

7월 한달은 여름방학 기간으로 예배를 쉬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목요예배는 8월 8일(목)에 시작됩니다.

사랑의교실 (7월)

7월 사랑의교실은 여름방학입니다. 사랑의교실 가족들 모두 더운 날씨에 몸 건강히,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안전하게 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밀알가족 동정

코스보밀알 담당 김00 선교사님 가정이 미국에서의 안식년을 모두 마치시고 지난 7월 초 선교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 가족 모두 건강하며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밀알 8월 기도제목

- 밀알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 LA화요모임, OC목요모임이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어 밀알가족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 토요 사랑의교실 6개 브랜치가 은혜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밀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 스텝들과 모든 밀알가족들, 후원해주시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감사 가운데 2025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 2025년도 밀알 장학생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준비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 10월3일(금)과6일(주일) 열리는 '2025 밀알의밤'이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순조롭게 준비되고 진행되길.

| 북가주

화요예배

8월은 화요모임 방학 기간입니다. 가을예배 시작은 9월2일(화) 세계선교침례교회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건강한 여름방학 보내

시길 바랍니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더운 여름 날씨에 청년밀알 친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시면서 충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청년밀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셨던 오클랜드 항구에서 선박선원 선교를 하셨던 유영준 목사님께서 지난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선교센터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준비해간 점심을 맛있게 나누어 먹고 마시고, 아름다운 바닷가를 산책했던 추억을 남겨 주신 목사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아프신 기간동안 우리 청년들이 편지를 써서 위로로 전했고, 매주 모일 때마다 힘써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만나 예배를 할 때마다 강조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말씀을 외우면 무척 기뻐하셨고 예쁜 카드와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셨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씩씩하게 따라가는 청년밀알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월, 화, 목요일에 있는 성경읽기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견스럽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삶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북가주밀알 8월 기도제목

-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연화 자매님(재가장애인), 도한철 선교사님(루게릭), 로사 자매 아버지(건강회복), 이은희 작가님(신장투석), 윤정환 형제, Jean Kim 자매(건강회복), 박경화 집사님(고관절수술회복), 예진 어머니(수술회복), David Im(건강))
- 한 달 동안 예배 모임이 잠시 멈추는 이 시간을 통해, 장애인 형제자매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쉬고 회복되게 하소서. 바쁜 사역과 일상 속에서 놓쳤던 숨결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육체의 피로와 마음의 무거움이 주님의 평안 안에서 풀어지게 하소서.
-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간의 사랑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장애를 둘러싼 오해나 지침이 아닌 따뜻한 눈빛과 손길이 가득한 여름이 되게 하소서. 가족들 안에 성령의 위로와 연합이 있도록 도우소서.
- 봉사자들이 잠시 현장에서 물러나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기간 동안 말

씀과 기도로 충전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기쁨을 다시 새기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열정과 기도가 이어지게 하소서.

- 장애인 형제자매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없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 함께 사역하는 지역교회들과의 동역이 더욱 돈독해지고, 예배는 쉬지만 기도와 연대는 멈추지 않게 하소서. 서로를 향한 중보와 격려가 이어지고, 북가주 지역의 장애인 선교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소서.
- 다가오는 가을 학기와 예배 재개를 위해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뤄지게 하시고, 새로운 봉사자들이 세워지고, 필요한 손길과 마음이 잘 채워지게 하소서.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정돈되게 하소서.
-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역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고 웃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작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소서.

| 시애틀

시애틀 사랑의교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사랑의교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사랑의교실은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캠퍼스에서 오셔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2025년 1학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전에 예배와 크래프트, 음악 수업을 하고, 벨링햄 화평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가서 즐거운 게임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교실을 위해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과 8월은 방학을 하고 9월 첫 주 토요일에 다시 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남성식 디렉터 425-361-9368)

시애틀밀알아카데미(S.M.A)

매주 화요일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음악수업, 크래프트, 탈춤, 북

클럽, 산책, 마트 장보기, 영화보기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는 장영준 목사님 댁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초미 선생님의 북클럽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는 SMA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은 방학을 하고 8월 12일부터 다시 모입니다. 방학 동안에도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전히 더 많은 봉사자(남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타코마밀알아카데미(T.M.A)

매주 목요일 타코마 성인 장애인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수업, 체육, 크래프트, 산책, 견학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는 2025년 1학기 마지막 모임이었습니다. 이날 풍성한 점심으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태권도는 한학기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으로 나무 판자를 격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7월과 8월은 방학을 하고 9월 첫 주 목요일에 다시 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많은 봉사자들로 인해 TMA의 귀한 사역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사랑의캠프 성료

시애틀 사랑의캠프가 지난 6월27일(금)~29일(주일)까지 2박 3일동안 스텐우드에서 윈비치 캠프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모두 80명의 장애인과 봉사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주제는 'Run for the Prize'였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수영, 활쏘기, 기차 타기, 미니골프, 마켓체임, 캠프파이어, 세족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두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캠프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주밀알 신임 총단장, 이사장 취임식

미주밀알 신임 총단장 및 이사장 취임식이 8월 30일(토) 오전 11시에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있습니다. 신임 이사장: 권준 목사, 신임 총단장: 장영준 목사

감사합니다

- 밀알에 귀한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신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SMA 장소와 15인승 Van을 사용하도록 해주신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SMA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

를 주언약교회, 낮은올타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사랑의교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온누리교회, 웨더럴웨이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알립니다

- 올해 시애틀 여름캠프는 6월 27일~29일 윈비치에서 있었습니다
- 동부 사랑의캠프가 7월 17일~19일에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있었습니다. 장영준 목사가 참가했습니다.
- 시애틀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학교)예배가 주일 오후12시에 있습니다.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 SMA(시애틀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치료, 검도, 요가,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2, 109호)
- TMA(타코마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1:0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치료, 요가,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밀알에서 필요한 것

- 시애틀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견학, 스포츠게임, Dancing, 태권도 지도, 동물원관람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재정 지원)
-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플라스틱 수저, 포크, 냅킨, 물도 필요합니다)
- 매주 S.M.A(화) 와T.M.A(목) 성인장애인 예배와 활동 모임에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 (20명)

기도해 주세요

- 2025년 밀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와 봉사자를 보내 주세요.
- 타코마 송인숙 간사님의 수술 후 회복을 위하여

- 사랑의교실과 SMA & TMA친구들과 가정, 봉사자를 위하여
- SMA 새로 오신 음악 선생님과 탈춤 선생님을 위하여
- 새로 온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 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MA, TMA를 위하여
-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장애인)를 위하여

| 밴쿠버

밀알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

밀알에서 행복한 친구들과 밀알봉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밀알러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밴쿠버밀알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는 행복한 예배와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6월 14일에 2024/25 학년도 종강감사예배와 함께 종강파티를 하고, 2025/26 학년도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4-25 학년도 종강감사예배 및 종강파티

감사예배는 웰컴팅과 함께 열정 가득한 찬양을 드린 후, 이상현 목사님이 마태복음 18:3 말씀을 본문으로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를 주제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종강 감사행사는 김예은 친구의 클라리넷 연주로 시작하여 친구들과 밀알러들에 대한 상장 수여식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수여한 상장은 친구들과 함께 해온 버디 밀알러의 칭찬 가득한 특별한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봉사한 밀알러에게 수여하는 캐나다 상원의원 어워드 연아마틴 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전자영 밀알러가 감동적인 바이올린 연주로 자리를 빛내주었고, 자모회에서는 단장 목사님께 감사카드를 전달하고, 종강파티 음식을 준비해 주어 모두가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밴쿠버밀알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밴쿠버밀알 여름 행사와 활동

-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미주 서부지

역 밀알 연합캠프인 사랑의캠프(6월26-28일, CSU Long Beach)에 참가하고, 이어서 밴쿠버밀알만의 감동캠프(6월 28일-7월 1일, Riverside & LA)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깊이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캠프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11-12일에는 비전팀 리트릿을 열고 2025/26 학년도 및 향후 진행할 밴쿠버 밀알 선교사역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7월 26일에는 재즈페스티벌에 참가하고, 8월 6일에는 아트페스티벌로 모였습니다. 또한, 밀알러(발룬티어) 리크루트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가질 밀알러 오리엔테이션과 사랑의교실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알러(봉사자) 리크루트

신청방법: www.vancouvermilal.com - > volunteer / 신청마감일: 8월 21일(금) 24:00

밀알 1일 단기선교

<밀알 1일 단기선교>는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도, 멀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도, 따로 휴가를 내지 않고도,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단기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밀알이 진행하는 사랑의교실에 몇 시간 함께 하시는 것으로 훌륭한 단기선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교회나 기관 단체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밀알선교사역 나눔

7월 2일에 밴쿠버중앙장로교회 초청으로 밀알선교사역을 나누었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밀알선교사역 및 장애인 '선교'에 관하여 알기 원하거나, 함께 할 관심이 있는 교회, 기관 및 단체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04-339-4417).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이트랜스퍼를 통하여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밀알을 후원하시면 세금감면을 위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하실 때, 영문이름, 포스탈코드를 포함한 주소, 이메일을 남겨 주세요. (연락처: giving@vancouvermilal.com)

The Prayer & The Bridge

밀알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에 헌신하실 분을 찾아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월 \$10(한 구좌) 정기후원하실 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구좌를 맡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장애인의 회복으로 표상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쓰임 받게 하시고, 복음 사역, 성령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게 하소서.
-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지역교회 및 관심 있는 그룹들과 장애인 '선교'하는 밀알사역을 나누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옵소서.
-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봉사자, 기도 및 재정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소서.
- 2025년 밴쿠버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밴쿠버의 장애인들과 그 가정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소서.
- 기도와 성령으로 섬기는 밀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밀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밀알,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밀알로 세워주소서.
- 굿즈프로젝트 <투게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친구들을 잘 돕고, 사역에 인적, 물적 힘을 더하는 결과를 주옵소서.
- <밴쿠버밀알러프로젝트: '꿈너머 꿈'> 조직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연결이 잘 되게 하시어, 하나님나라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 발룬티어 리크루트와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2025/26학년도 사랑의교실 및 밀알의밤 등 이벤트 준비가 주님 은혜와 인도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단장 이상현 목사님과 유혜정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텍사스

토요 사랑의교실

토요 사랑의교실은 여름방학 중에 있습니다. 8월에 개학합니다. 사랑의교실의 점심봉사를 원하시는 개인과 단체는 임현정 전도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 참여하기 원하는 5세 이상장애인들은 연락주세요. 267-815-6211, txmilal@gmail.com

여름성경학교 종료

텍사스밀알은 여름방학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5개 교회(세미한, 뉴송, 제자침례, 베다니, 영락장로교회)와 함께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기를 소원하며, 지역교회가 하루를 장애인선교를 위해 단기선교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여름성경학교에 주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봉사자 수만큼 장애인을 받아 10명의 장애인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졌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전하며 높은 교회들에게, 봉사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합니다. 할렐루야!

1:1 자원봉사자 모집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1:1로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토요 사랑의교실(9:30-1:30), DMA(목요일 10:30-1:30), 오케스트라(토요일 1:30-3:00)에서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밀알선교단으로 문의주세요. (267-467-5971)

교사, 자원봉사자 모집

-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하는 사랑의교실에 교사로 섬겨주실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원하세요.
- 매주 목요일 10:30-3:15에 진행되는 밀알 아카데미에 미술과 음악, 그리고 스포츠 교사로 섬겨주실 분을 찾습니다
- 매주 토요일 1:30에 진행되는 밀알 오케스트라에 피아노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전공하셨거나 오랫동안 연주하신 분을 기다립니다. 더불어 오케스트라 5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현악, 관악, 타악, 밴드 등 여러분의 재능을 함께 나눠주세요.

기도합니다

- 텍사스밀알선교단을 통해서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원 봉사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이 밀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밀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 2025년 밀알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이 나눠지며 사랑이 실천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사 장애인 선교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하소서
- 사랑의교실 교사, 봉사자를 세워주소서, 더불어 지금의 봉사자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
-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어, 미술, 운동, 행동치료 등의 전문가 그룹을 조성하게 하시어 밀알 토브 사역이 진행되게 하소서
- 지역의 여러 교회가 밀알 사역을 선교지로 알게 하시어, 선교에 동역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 선교의 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하소서
- 가을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감동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잘 펼쳐지는 사역이 준비되게. 하소서

재정보고 2025년 6월

| 남가주

■ INCOME: \$82,014.88

Individuals: \$3,669.50 \$30 Hyoung Il Seo, Youn G Ro / \$50 Hye Ran Lee, Jaebine Song, David S Shin / \$59.50 Missionary Deborah / \$100 Anthony D & Chun C. Gamble, Ho Myoung & Won Sook Lee, June Sin, Mi Sup Lee, Tae Hwa Jo, Young Soon Park, Zu Kim / \$200 Hyea Nam Kim, Jaemin Youk / \$300 David Heung & Jeong Mi Kim, Douglas Young Woo & Hyun Ok Yeo, Eun Chul Lee & SoonHee Lee / \$400 Keun Suk Park / \$1,000 Inju Uyebara

Church & Business: \$10,420.00 \$50 Alabama Full Gospel Church / \$100 God's Righteousness Church, Han Woo Ri Korean P.C. of Riverside, Jesus Light Church, Salt Covenant Church / \$150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 \$200 Bankcard Services, Choong Hyun Ch(Good Samaritan Fellowship),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Hyung Je Pre. Church of S.C,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Living Water Mission Church, Wisdom Daycare / \$220 Bethel Korean Church / \$300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Full Gospel LA Church, H.D. Grace Church, Irury LLC, Las Vegas Vision Church, Sarang Community Church, Shalom Church of So. California, The Lord's Community Church / \$500 General Metal Recycling Co., Santa Barbara Korean PC / \$600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Lord's Light Community Church, Suh Moon Presbyterian Church / \$900 Thanksgiving Church / \$1,000 Grace Mission University / \$1,100 New Life Korean Church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67,925.38 \$50 Fidelity Charitable / \$360 New York Life / \$2,235 Designated for Rent / \$136 Class AGAPE T-Shirts / \$12,199 Love Festival / \$9,336.68 Camp Fundraising / \$28,521.50 Camp AGAPE Fees / \$12,630 Camp AGAPE Donations (\$100 Paul Arnold / \$200 Sung Won Jung / \$300 Eunsook Park, Myung Ae Bang / \$500 Gloria / \$730 Sunnyside Pre.Church / \$1,000 BNX Shipping, Eun Chul Lee & SoonHee Lee, Good Stewards Church, HUFs LA GCEO, James Worldwide Inc, Lighthouse KPC, Young Sun Lee & Young Hee Lee / \$1,500 Shin & Kyung Hee Kim / \$2,000 New Life Vision Church) / \$650 Thursday Worship(\$150 Dong Hoon Kim / \$500 One Heart Women's Club) / \$854 M&W Publication & Shipping fees from Vancouver Milal / \$953.20 Camp t-shirts & Shipping fees from Seattle Milal

■ EXPENSE: \$45,127.26

Class AGAPE: \$2,758.98 \$180.37 Class Outings / \$1,038.25 Class Meals & Snacks / \$169.97 Class Materials & Supplies / \$1,370.39 Events & Meetings

Camp AGAPE: \$14,372.10 \$6,300 Transportation / \$1,701.78 Camp Meals & Snacks / \$3,656.56 Camp Supplies / \$1,884.05 Pre-camp Expenses / \$829.71 Other Camp Expenses

Adventure AGAPE: \$123.85 Pre-visit expense

Media Mission: \$757.66 \$657.66 Magazine Shipping & Handling / \$100 PO Box Return mail

Meetings & Events: \$1,212.91 \$1,150 East Coast Camp AGAPE / \$62.91 Love Festival

Charitable Supports: \$4,229.07 \$500 Periodic Supports / \$300 Palm Misson Church / \$62.97 Birthdays / \$200 Ruah Art Center / \$100 Graduation gift for the staff / \$250 Funeral

flower for Yoon Family / \$112.88 Incheon Disability Mission Team Lunch / \$77.23 Shimbang / \$1,000 Tuesday Worship / \$1,125.99 Thursday Worship / \$500 Farewell gift for Missionary Kim family

Fundraising Expense: \$4,849.82 Merchandise (Beef Jerky, Cham Ki Leum, Hazelnut Coffeebeans)

Payroll Expenses \$8,787.53 \$5,508.25 Salaries & Wages / \$484.28 Payroll Tax / \$800 Employee Benefit / \$1,995 Housing Support

Admin & Management: \$7,624.73 \$3,613.54 Rent / \$150.57 Woongjin / \$331.50 FBM / \$136.78 Telephone & Internet / \$362.87 Electricity / \$46.32 Office Supplies / \$375.65 Repair & Maintenance / \$1,266.06 Alliance Fee / \$1,000 Legal & Professional / \$38.64 Office Meals / \$10 Bank Charges / \$213 SBA EIDL Interest / \$79.80 Postage & Shipping

Auto Expense: \$410.61.00 \$300.61 Gas / \$110 Maintenance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20,174.03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2,236.17

**\$5,522.58 added back to balance due to April & May rent adjustment

■ Milal Scholarship Finance Report

INCOME: \$26,340.00 <Church & Business \$900: \$300 Irvine Onnuri Church / \$600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Specials & designated \$25,440: \$1,000 Julianne Lee designated for Jonghoon Lee / \$840 Milal Mission in N.CA designated to Mexico Milal / \$3,600 KDF Designated Scholarship for 2025 / \$20,000 Designated to Milal Mission in N.CA>

EXPENSE: \$29,167.36 <Class AGAPE \$5,169.36: Teachers' Compensation> <Scholarship \$23,973: \$2,100 Collegians / \$900 Volunteer Aids / \$1,000 Designated to Jong Hoon Lee / \$3,600 KDF Scholarship for 2025 / \$13,628 Reserved Ministers Supports / \$2,745 Third Countries> <Bank Charges \$25>

Previous Carry over Balance: \$66,816.29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63,988.83

| 북가주

■ INCOME: \$21,782.00

Individuals: \$7,060.00 \$50 김성준, 김애경, 나정화, 이우성, 정찬미&이석권 / \$100 Klepeis Family, Jonathan & Joung Ok Han, 공은정&명진, 김만종&정애, 박순희 / \$200 배매희, 최영훈 &재현 / \$250 레이첼가정 / \$260 조하나 / \$300 김정기&남경아, 오영수 / \$500 차현상&김은미 / \$4300 이지선&학천

Church & Business: \$4,697.00 \$57 새소망교회 / \$100 브루스리 미용실, 산호세순복음중앙교회 / \$200 이스트베이한빛교회, The Light of Christ Church, LUXE Apparel & Gift / \$300 몬트레이한인제일장로교회, 심포니교회 / \$400 뉴라이프교회, 상향한인반석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 \$600 몬트레이소망장로교회 / \$690 실리콘밸리장로교회(밀알순) / \$750 세계선교침례교회

Designated Donation: \$10,025.00 <사랑의교실 \$800: \$100 김정기&남경아 / \$200 안수빈&예빈가정 / \$500 산호세영락교회> <청년밀알 \$600: \$100 마이클가정, 박상우가정, Chanwook Kim / \$300 엠마오선교> <화요예배 \$420: \$100 김정기&남경아, 권유진 &이강진 / \$220 전송화> <사랑의캠프 \$8,205: \$100 노선희 / \$200 김영, 김정기&남경아, 앤드류가정 / \$300 공은정&명진 / \$2,000 노엘장로교회 / \$3,590 참가비 / \$1,615 참가료판매수익금>

■ EXPENSE: \$18,777.57

Mission Expense: \$13,029.56 사례비(5인) \$7,010.42 / 선교활동비 \$305.07 / 미주밀알지원 \$689.43 / 은금비 \$300 / 화요일예배 \$428.24 / 사랑의캠프 \$3,456.4(참가비 \$760, 항공권 \$2,363.23, 기타준비비 \$333.17) / 멕시코밀알지원 \$840

Admin. & Management: \$2,070.96 유틸리티 \$151.42 / IRS Tax \$489.54 / 사무실임대료 \$1,400 / 수수료 \$30

Auto Expense: \$2,286.32 유류비 \$211.15 / 세차 \$19.99 / 보험료 \$2055.18

Media Mission: \$1,390.73 밀알&세계 발송비 \$288.33 / 밀알&세계 인쇄비 \$1,102.4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37,429.21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40,433.64

| 시애틀

■ INCOME: \$29,497.00

Individuals: \$5,590.00 \$30 남숙희, 정은옥, Chung Kim / \$50 박진경, 이영자 / \$100 송인숙, 노현숙X2, 김해정, 오주미, 김상수, 윤태준&이정주X2 / \$200 조천석, 문창선 / \$300 김순홍 / \$400 장영준&장아련 / \$500 경자훈 / \$800 이명운 / \$1,000 주성혜 / \$1,200 허순무

Churches: \$3,850.00 \$100 시애틀은혜장로교회X2, 순복음 큰빛교회,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자유교회, 벨링햄 화평교회, 타코마삼일교회 / \$150 페더럴웨이 벨렐침례교회 / \$200 선한이웃교회 / \$700 동양선교교회(허인홍) / \$1,000 조이플선교회 / \$1,100 조이플선교회(김혜란)

Business: \$400.00 \$100 임학수CPA / \$300 Fair Ridge Law Firm

Designated Donation: \$19,657.00 \$1,800 SMA & TMA / \$180 Fundraising(참가료) / \$17,677 사랑의캠프 후원(\$300 시애틀임마누엘교회, 앤드류 / \$400 페더럴웨이중앙장로교회 / \$500 이영자, 윤영필, 타코마반석장로교회, 새시온교회 / \$520 밀알음악회 / \$1,000 김진희, 박양숙, 타코마교회연합회,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시애틀온누리교회 / \$2,000 시애틀형제교회 / \$2,157 밀알음악회 당일헌금 / \$5,000 LWU)

■ EXPENSE: \$29,608.57

Mission Expense \$3,655.51 / Admin & Management \$1,634.82 / Media Mission \$1,938.24 / Class AGAPE \$351.47 / Dues to LA \$376.80 / SMA & TMA \$1,469.72 / Outreach & Retreat \$1,200.00 / Business Reply Mail \$350 / Tax \$447.97 / Agape Camp \$17,094.43 / Insurances \$435.22 / Pastoral Visit \$354.39 / Retirement Plan \$3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73,522.11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73,410.54

| 밴쿠버

■ INCOME \$6,501.99

Individuals: \$1,190.00 \$10 김형용, 계영실 / \$20 이경순, 한은순, 정미영 / \$30 원소현, 테레사최 / \$50 이혜영, 오정석, 강시영, 김형윤, 이재림 / \$100 이덕재, 김계은, 곽혜경, 이상현유혜정 / \$200 하준석, 서동구

Church & Business: \$1,700.00 \$100 헤브론교회 / \$200 오로니아, 러브밴쿠버(WJD Foundation) / \$1,200 성산교회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3,611.99 <6월 사랑의교실 예배헌금 \$615: \$10 윤관진 / \$20 장믿음, 봉에드윈, 김도건, 오예찬, 무명 / \$40 박수영 / \$50 김민재, 이해, 이예담, 서창성 / \$65 홍사랑 / \$100 서남희, 서동구> <designated \$1,500: \$500 Coram Deo(6월) / \$1,000 Coram Deo> <함께걸음콘서트 \$620: 티켓(Eventbrite)> <LA캠프참가비 \$876.99>

■ EXPENSE: \$14,985.16

Payrolls: \$3,533.40 사례비(2인)

Mission Expense: \$1,282.13 활동비 \$96.95 / 밀알&세계 인쇄 및 배송비 \$1,185.18

Events: \$4,459.33 <함께걸음콘서트 \$377.63: 디자인 관련 \$300 / 감사인사 \$77.63> <LA캠프경비 \$4,081.70 사랑의교실 참가비 및 감동캠프>

Class AGAPE: \$61.60 Happy Together Class 통신비

Admin & Management: \$1,145.51 통신비 \$67.20 / 세무보고 \$1,050 / 세무보고우편료 \$18.31 / 은행 fee \$10

Taxes: \$486.65 payroll(6월)

Insurance: \$1,723.00 Liability Insurance (2025/26)

Auto Expense: \$793.54 렌탈부금(6월) \$429.54 / 운행비 \$364

Designated Expense: \$1,500.00 코람데오 (6월) \$500 / 시온영국항공료지원 \$1,0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20,058.80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4,668.31

| 텍사스

■ INCOME: \$4,389.43

INDIVIDUALS: \$895.00 \$20 진현주 / \$25 방진원 / \$50 김태남 & 이선화, 김희경, 정선혜 / \$80 정호영 / \$300 장덕환 / \$320 채경수

CHURCH & BUSINESS: \$3,054.43 \$4.43 interest / \$50 프렌즈교회, 포드워스제일장로교회 / \$100 빛과소금의교회, 라이프교회, 나눔교회 / \$150 영락장로교회 / \$200 JDX Mission, 라이트하우스교회, 제자침례교회, 코너스톤한인침례교회 / \$300 주님의교회 / \$600 달라스중앙감리교회 / \$800 베다니장로교회

DESIGNATED DONATION: \$440.00 <사랑의교실: \$50 임현정 / \$100 Justin Kim, 무명 / \$90 VBS 등록비> <아카데미&오케스트라: \$100 구분진>

FOOD SUPPORT: Escape Bakery

■ EXPENSE: \$5,666.90

MISSION EXPENSE: \$4,369.21 Payroll \$1,385.25 / housing support \$1,700 / 밀알&세계 인쇄비 \$350 / 지단상회비 \$139.95 / 은금비 \$288.02 / 간사사례 \$500 / 단장활동비 \$5.99

CLASS AGAPE & 밀알아카데미 & 오케스트라: \$285.50 직업재활 \$85.50 / KTN광고료 \$200

ADMIN & MANEGEMENT: \$1,012.19 장소사용료 \$200 / 은행, 카드 등 수수료 \$87.88 / IRA tax \$229.50 / 통신비 \$241.81 / NTTA toll \$80 / 우표 \$73 / insurance \$1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0,018.23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8,740.76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걸,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프,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실행단원() 후원단원() 월 \$5() \$10() \$20() \$30() \$50() \$100() 그외 \$()

서명: _____ 날짜: _____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 worldmilal.org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wheatmissioninus@gmail.com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단장) | 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admin@milalsca.org

정기모임	OC	매주 목 오후 7: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LA	매주 화 오후 7:00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밝은예배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7:00 (현재는 Zoom으로 드리는 월레기도회로 대체)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사랑의교실	OC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연합장로교회	1565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LA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동부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선한청지기교회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얼바인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토렌스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성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김정기 단장) | milalnca.org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정기화요모임	산호세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사랑의교실	산호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산호세새소망교회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산타클라라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장영준 단장) | 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wheat@yahoo.com

사랑의교실 시애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형제교회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Tacoma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이상현 단장) | vancouvermilal.com

Instagram: @Vancouver_milal | Youtube: @Woorilog 우리로그, @Vancouvermilal 밴쿠버밀알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vanmilal01@gmail.com

사랑의교실 토요일 Happy Together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써리장로교회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Texas Milal Mission 텍사스밀알선교단 (채경수 단장) | txmilal.org | facebook.com/texasmilal

2828 E. Trinity Mills Rd, #360, Carrollton, TX 75006 / Tel : 267-467-5971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성경적상담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3:00	밀알선교센터	2828 E. Trinity Mills Rd, #300, Carrollton, TX 75006
목요 밀알아카데미	매주 목요일 오후 1:00 ~ 오후 4:00	달라스우리교회	2633 Royal Ln, Dallas, TX 75229
밀알청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5:00 ~ 오후 6: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4: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 152562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턴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 멕시코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